제6실 | 서예 | 호류지에 전래된 법화경

N-12 법화경

황마지에 옅은 먹으로 경계선을 그은 용지에 『법화경』 8권을 필사한 작품으로, 한 행에 17자가 들어갑니다. 글씨가 약간 굵고, 힘있는 필치로 쓰였으며, 8권 모두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시대의 정돈되고 단정한 사경 작품과 비교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헤이안시대에 걸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6실 염직 | 촉강금 띠와 백전

이번에는 호류지에 전해져 온 고대 염직품 중에서 매우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촉강금 띠>를 소개하고, 아울러 흰색 전을 전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선명한 색채가 남아 있는 촉강금, 그리고 먼 대륙으로부터 전해진 펠트 직물인 전을 통해, 아스카시대~나라시대 문화의 높은 예술성과 국제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N-47 촉강금 띠

촉강금(蜀江錦)이란 호류지에 전해져 온 염직품을 대표하는 비단 종류입니다. 이 비단은 기법상으로는 경금(經錦)이라고 불리는데, 날실(세로) 방향으로 색깔이 들어간 실을 사용하여 그 실을 띄우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무늬를 나타냅니다. 나라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비단은 씨실(가로)로 무늬를 표현하는 위금(緯錦)인데, 경금은 그보다 이전에 있던 오래된 기법입니다.

호류지의 전승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의 태자비였던 가시와데 비의 허리띠였다고 합니다.

N-43 : 촉강금 요 일부 겉감 조각

요(褥)라고 불리는 깔개에 사용된 촉강금입니다. 선명한 붉은 바탕에 거북등무늬를 배치하고, 그 안에 꽃과 새, 강아지 같은 동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N-54-1 흰색 전

전(氈)은 양털을 압축하여 만든 펠트제 깔개로 고대 사원에서는 승려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전은 지금도 유목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작품도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뒤 당나라로 건너와서, 당나라에 파견된 일본 사신이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밋밋한 작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대한 국제 교류의 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